

싱가포르의 석유교역

싱가포르의 석유교역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싱가포르 석유산업은 '87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지난해에 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 칼텍스, BP, 엑소, 모빌, 셸 등 거대기업들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실제 이들의 역할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들 石油 메이저들의 정상적인 역할은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인 구매와 판매는 수많은 소규모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저들도 이러한 소규모회사들과의 거래를 위한 창구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60여개가 넘는 Oil trading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 석유교역은 정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데,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石油의 구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백만b/d 규모의 정제시설을 갖춘 싱가포르는 휴스턴 및 로테르담에 이어 세계 3대 석유정제센터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원유의 구입선은 주로 페르시아만, 인도네시아 및 中國이다.

입지적 조건

싱가포르의 石油교역활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에 힘입은 石油수요의 증가에 기인되고 있다. 石油 및 석유제품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이상적인

자리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정제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유업체는 메이저에게 경쟁력 있는 정제용역을 제공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메이저들은 싱가포르 정유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투자했다. 셸은 잔사유 접촉분해시설에 480백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엑소는 비스브레이크 시설에 150백만달러, 모빌은 수소화분해시설에 170백만달러, 그리고 Van Ommeren 탱크회사는 저장시설 확장을 위해 12백만달러를 각각 투자하였다. 이러한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코스트를 낮추어 가동효율은 높인다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교역진흥원(Trade Development Board)으로부터 권장되고 있다. 정제시설이 고도화되고 보다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제품생산량 및 교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정제센터로서 싱가포르의 또 다른 잇점은 아시아·태평양의 표준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다. 油價는 국제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중개업자들은 이러한 油價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정제센터로 이용하여 다른 정제센터인 런던, 로테르담 및 뉴욕의 非활동시간대에도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석유 거래는 24시간 지속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역할

튼튼한 재정적 기반과, 수송선박 그리고 통신망을 갖춘 싱가포르 정유산업은 이 지역의 石油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급균형조정센터로서의 역할도 한다. 최근 제품수입을 자유화한 日本이나 급속한 공업화과정에 있는 中國 및 泰國 등은 때때로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석유제품의 공급부족을 겪는다. 이런 기회를 싱가포르 정제센터는 십분 활용하며,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제품공급의 유연성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유산업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의 석유교역은 '87년에 222억달러로서 싱가포르 총 교역의 17.2%를 차지하였다. 그 후 '88년 상반기 동안에는 '87년보다 28% 증가한 47백만톤(1.9백만b/d)의 석유교역이 이루어져 싱가포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대되었다.

정제 및 수급균형 조정센터로서의 싱가포르 정유산업은 전통적인 계약정제에서 최근에는 현물정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선물시장 개설

石油교역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SIMEX)에 의해 石油선물시장이 개설됨으로써 더욱 증대되었다. 石油선물시장이 운영됨에 따라 생산자, 중개업자, 정제업자들은 추가수익을, 그리고 소비자들은 油價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石油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석유선물시장은 원래 발전 및 병커연료로 사용되는 黃연료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료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싱가포르는 지난해 10백만톤의 병커油를 공급하여 세계 최대 병커油 공급자가 되었다.

정부의 지원

石油 선물시장의 육성과는 별도로 TDB는 석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TDB는 '89년 1월부터 해외 石油거래에 대하여 10%의 세를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TDB는 석유거래업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회사들을 심사하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지정된 회사들이 제한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石油거래는 싱가포르 경제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양시킨다. 금융, 보험, 저장 및 선박부문 등이 석유 거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시험소, 석유검사관 및 기타 지원서비스 부문도 석유교역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밖에 石油 선물거래의 개설은 보다 중요한 효과 즉 외화의 유입과 자본유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이곳의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싱가포르가 외화 주 수입원인 석유산업을 기복없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이다. 가장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석유회사라 할지라도 90년대 또는 그 이후에도 기업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SPC, BP, 칼텍스로 구성된 싱가포르 정유회사(SRC)의 참여사인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SRC 콘소시엄이 정제시설 고도화, 현대적 발전시설 및 기기설비 및 새로운 저장시설을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1억여 달러를 투자할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모든 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이지만 주요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교역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금융, 통신 및 항만의 하부구조의 개발 및 개선을 확신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石油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석유거래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하여 쉘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石油소비는 너무 적어서 수출가격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곳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

